

##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에 대한 고찰

河成龍·尹暢烈\*

### 對『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의 考察

河成龍·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教室

『金匱要略』是宋代校正醫書局以仲景的『傷寒雜病論』爲內容基礎，除掉傷寒部分之後把跟雜病有關的內容另外整理出來的醫書。『金匱要略』整編是25編，這些都以疾病而分編的。其內容以內科雜病爲主而兼有外科婦科，其中關於外科的有一編，關於婦科的有三編而且跟救急食禁有關的內容有三編，其它18編是內科病的辨證治療內容。

其中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其論述了消渴，小便不利，淋病等三个疾患。本篇論文參考了歷代注家的注釋而研究出以下結論。

1. 消渴的病因可分爲胃熱，腎虛，肺胃之津液損傷。在治療方面用有溫腎補陽功能的腎氣丸治療下消，用有清熱生津作用的白虎加人參湯來治療上消。

2. 小便不利雖然是熱性病在發熱過程中併發的症狀，可是也可見於雜病上，所以不必俱限於傷寒論條文。分析用於治療的處方-五苓散可火氣利水，豬苓湯可滋陰利水，瓜藶瞿麥丸可溫陽利水，蒲灰散與滑石白魚散可化痰利竅泄熱，豬苓戎鹽湯可益腎健脾滲濕。

3. 淋病與小便不利的治療和處方極於相似，所以病機相同的話可用同樣的處方

關鍵詞：『金匱要略』，消渴，小便不利，淋病

### I. 序 論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는 消渴,小便不利,淋病 세가지 疾患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小便不利는 원본에는 小便利라고 되어 있으나 본편의 내용으로 볼 때 小便不利라고 하는 것이 옳다. 消渴,小便不利,淋病 세가지는 증후에 있어서 각각의 특징이 있으나 臟腑의 病變 觀點에서 본다면 모두 腎,膀胱과 관련이 있으며, 病理變化上에서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때문에 세가지 질환을 한편에

서 종합하여 논술한 것이다.

本篇에서 논술한 消渴의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서 的 소갈은 두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증상으로 熱性病의 진행과정중에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로 매우 심한 口渴을 뜻한다. 또다른 하나는 病名으로 渴病중의 消渴病을 뜻한다. 消渴病의 원인에 대하여 前人들은 대부분 肺胃腎과 有關하다고 보았으며, 精氣不足으로 말미암아 燥熱內生하면 갈증이 나게 되는데 오히려 소변은 많아지는 것; 胃熱氣盛으로 消穀善飢한 것; 肺熱傷津으로 口乾舌燥하고 渴欲飲水한 것이 있다. 그러므로 후세 의가들은 증후의 변화에 따라 上,中,下 三消로 나누었다.

소변불리는 症狀으로 수많은 諸病에서 出現할 수 있다. 본 篇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내용을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렬 · E-mail :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4년 5월 26일

언급한 범위가 비교적 넓어서 時病과 雜病 모두에서 소변불리 증상을 볼 수 있다.

淋病은 小便澀痛을 주증으로 하는 증상이다. 후세에는 증후와 병리변화에 근거하여 膏淋, 石淋, 勞淋, 氣淋, 血淋 등 다섯 종류로 나누었다.

본편은 세가지 병증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내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심지어는 論은 있으나 方이 없는 경우와 方은 있으나 論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후세의가들은 脫簡일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문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는 『傷寒論』과 역대 의가들의 주석을 참고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消渴, 小便不利, 淋病과 관련된 조문의 의미를 정리하고 변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原文 1】

厥陰之爲病, 消渴, 氣上衝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即吐蛔, 下之不肯止.

### 【解釋】

厥陰病證에는 消渴이 있고 氣가 上行하여 心口를 衝撞하고 心中疼痛과 發熱이 있다. 그리고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을 생각이 없고 억지로 먹으면 먹은 즉시 토하는데 잘못해서 下法으로 치료하면 泄利가 그치지 않는다.

본 조문과 『傷寒論』의 厥陰病의 提綱과 비교하면, ‘衝心’이 상한론에는 ‘撞心’으로 되어있고 ‘下之不肯止’가 상한론에는 ‘下之利不止’라고 되어 있어서 개별적인 글자는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일치한다. 상한 厥陰病의 消渴은 熱病의 진행과정중의 一個症狀으로 雜病 범주의 消渴과는 다르다. 때문에 어떤이들은 본 조문은 傷寒論의 조문이 이곳에 잘못 끼어들어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喻嘉言은 “消渴證은 『內經』에는 說은 있으나 치법이 없고, 『金匱』에는 說과 治法이 모두 있는데, 이는 集書者가 傷寒厥陰經의 消渴文을 끼워넣은 것을

후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개 傷寒의 熱邪가 厥陰에 이르게 되면 熱邪의 기세가 더욱 깊어져 渴而消水하게 되니, 熱이 제거되면 渴하지 않고 消水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어찌 잡병의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병증과 비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사실 본 조문을 篇首에 둔 것은 병증들의 同異點을 살펴 명확한 진단을 하게 한다는 의의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본 조문의 病機解釋에 대해서는 『傷寒論』중에 나타난 내용과 참고하여 불만하다.

### 【原文 2】

寸口脈浮而遲, 浮卽爲虛, 遲卽爲勞, 虛則衛氣不足, 勞則營氣竭.

### 【解釋】

寸口の 脈象이 浮而遲한데, 浮는 虛를 뜻하고 遲는 勞를 뜻하는 것이며 虛는 衛氣不足을 나타내고 勞는 營氣竭을 나타낸다.

### 【原文 3】

趺陽脈浮而數, 浮卽爲氣, 氣數卽消穀而大堅, 氣盛則溲數, 溲數卽堅, 堅數相搏, 卽爲消渴.

### 【解釋】

趺陽脈이 浮而數한데, 浮는 氣有餘를 나타내는 것이고, 數은 胃熱로 消穀하며 大便堅硬한 것을 나타낸다. 熱氣가 盛하면 소변을 자주 보며 소변을 자주보면 대변 역시 단단해지니 便堅과 尿頻은 서로 합치되어 나타나면 곧 消渴病이 된다.

위의 두 조문은 消渴病의 병기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원문2]는 消渴이 營衛兩虛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이것이 消渴의 주요원인인 것이다. [원문3]은 消渴이 胃熱氣盛에 속하는 것의 병기와 증상에 대하여 천술한 것이다.

消渴의 원인은 醇酒厚味와 무절제한 생활 등 매우 많지만 그 병리변화를 살펴보면, 營衛精氣不足으로 말미암아 燥熱内生하여 발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원문 2]의 寸口浮遲之脈은 이러한 질병의 병기를 설명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寸口는 營衛

의 상태를 반영한다. 浮하면 衛氣不足이고, 遲하면 營氣虧損이며, 浮遲가 동시에 나타나면 營衛兩虛이다.

주의할 것은 脈象主病에 관한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浮는 主表하고, 遲는 主寒하지만, 여기에서 浮는 衛氣不足을 나타내고 遲는 營氣竭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맥상 일지라도 서로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관하는 病 역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浮는 主表하고 遲는 主寒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外感病인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 것이다. 消渴病은 내상의 범주에 속하는 질환이므로 병이 점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정기가 이미 손상되었으므로 여기에서의 浮는 氣虛外浮의 象을 나타내며, 遲는 營血不足하여 맥의 흐름이 不暢한 반응이다. 따라서 외감에서 浮가 邪氣在表를 뜻하고 遲가 寒氣凝滯를 뜻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본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점은 消渴이 내상질환에 속하며, 營衛兩虛가 발병의 주요원인이고, 營氣不足과 燥熱内生으로 인하여 消渴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寸口脈은 心肺를 살피는 것이므로, 消渴에 寸口脈이 浮遲한 맥상이 나타났다고 한 것으로 볼 때 上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문2]에서는 말이 미처 끝나지 않은 듯하니, 脫簡이 있는 것 같다.

[원문3]에서 趺陽脈이 浮而數하다고 한 것은 胃熱氣盛의 病機를 천명한 것이다. 趺陽은 胃脈이니 응당 沈伏해야하나 지금은 도리어 浮數하게 나타난다. 浮는 胃氣가 亢盛한 것이고 數은 內熱이 有餘한 것이니 熱盛하면 消穀하기 때문에 善飢한 것이며, 또한 熱盛하면 消穀하고 水分이 膀胱으로만 빠져나가서 腸은 潤택함을 잃게 되므로 대변이 단단해지고 小便頻數하게 된다. 이것이 후세에서 말하는 中消의 증상이다.

두 조문의 요지는 寸口脈과 趺陽脈을 통하여 消渴의 病機를 천술하고자하는데 있다. 前者는 氣虛外浮한 것이니 맥은 응당 浮遲無力한 것이고, 後者는 胃熱氣盛한 것이니 맥은 응당 浮數有力한 것이다. 때문에 前者는 消渴多飲이 主症이고 後者는 消穀善飢가 주증이다.

본 조문의 含義에 대하여 注家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모두 消渴의 병기에 관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心典』과 『發微』에서는 두 조문을 上消와 中消로 나누어 언급하였고, 『淺注』와 『金鑑』에서는 허로편이 잘못해서 이곳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증상의 분석에 있어서는 ‘大堅’에 대하여 『金鑑』과 『發微』는 大便堅이라고 하였고, 『心典』에서는 “火盛則水穀去而胃乃堅, 如土被火燒而堅硬如石也”라고 하여 胃가 단단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金鑑』과 『發微』의 주장이 더욱 따를만하다.

#### 【原文 4】

男子消渴, 小便反多, 以飲一斗, 小便一斗, 腎氣丸主之.

#### 【解釋】

남자가 소갈병에 걸렸는데, 소변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많이 증가하여 물 한되를 마시면 소변도 한되를 본다고 하는 경우에는 腎氣丸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본 조문은 下消의 증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소갈병은 남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데, 여기에서 ‘男子’라고 한 것은 精氣先虛로 인하여 병이 下焦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腎은 藏精하면서 또한 水火가 깃들여 있는 곳이니, 火가 蒸騰할 수 있으면 精氣가 상승하고, 精氣가 상승하면 上焦는 霧露之溉를 얻을 수 있다; 氣가 攝精할 수 있으면, 하초를 봉양할 수 있게 되고, 眞水가 충분하여 하초에 수기가 넘쳐나지 않는다. 그러나 가령 腎氣가 虧損되면 水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上焦에서는 陽亢하게 되고 氣不攝精하고 火가 다시 津液을 꺾박하니 水氣가 모두 아래로 쫓겨난다. 때문에 ‘물 한되를 마시면 소변 한되를 본다’는 하소의 증상이 출현하는 것이다.

또한 본 조문의 주요 병리변화는 腎과 관련이 있으며, 證候의 重點은 ‘小便反多’에 있다. 따라서 치료방법은 補益腎氣를 주로 함으로써 眞陽을 진작시켜서 水氣를 蒸化하게 하여 津液을 상승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眞陽이 振作되면 攝水할

수 있기 때문에 消渴도 그치고 小便 역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腎氣丸은 滋陰補陽之劑로써 본 병증에 적합하다. 本症은 多飲多尿 이외에도 脚腫, 陽痿, 腰痠, 羸瘦 등 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原文 5】

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宜利小便, 發汗, 五苓散主之.

【解釋】

脈이 浮하고 小便不利하며 약간 發熱이 있고 口渴이 있으면 五苓散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原文 6】

渴欲飲水, 水人則吐<sup>①</sup>者, 名曰水逆<sup>②</sup>, 五苓散主之<sup>③</sup>.

【解釋】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싶으나, 물을 마시기만 하면 바로 토하는 것을 水逆이라고 하며, 五苓散으로 치료한다.

상기 두 조문은 모두 『傷寒論』 太陽篇에 기재되어 있으며, 비록 消渴飲水의 증상이 있으나 이것은 열성질환의 진행과정중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할 뿐 消渴病과는 다른 것이다. 병기상에서 본다면 위의 두 조문은 停水가 主因이며, 증상에 있어서는 小便不利가 주증이므로, 비록 消渴에 속해있지만, 小便不利의 범주에 배속시키는 것이 당연할 것 같다.

【原文 7】

渴欲飲水不止者, 文蛤散主之<sup>①</sup>.

【解釋】

환자가 갈증이 있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려한다면 文蛤散으로 치료해야한다.

文蛤散方

文蛤五兩

右一味, 杵爲散, 以沸湯五合, 和服方寸匕.

渴欲不止한 것 역시 水가 정체되어 津液이 골고루 흩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文蛤은 腎邪를 제거하여 水氣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主之한다고 하였다. 水가 물러나면 津液이 생기고 갈증이 그칠 것이다.

본 조문에서 “渴欲飲水不止”라고 한 것은 비록 물을 마실지라도 口渴이 그치지 않음을 일컫는 것이다. 처방을 분석하면, 文蛤은 鹹寒한 약물로 능히 清熱止渴하므로 牡蠣와 같은 효능을 가진다. 또한 본 병증은 잡병의 범주내에서 虛陽이 위로 몰리고 진액이 위로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한 口渴로써 비록 증상이 消渴과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소갈이 아니다.

【原文 8】

淋之爲病, 小便如粟狀, 小腹弦急, 痛引臍中.

【解釋】

淋病의 증상은 小便 중에 작은 쌀알 같은 것이 있어서 小腹이 통증으로 단단해지고 당기며 통증이 배꼽까지 당긴다.

본 조문은 淋病의 증상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淋病은 小便淋瀝과 尿道疼痛을 主證으로 한다. 본 조문에서 “小便如粟狀”이라고 한 것은 小便淋瀝의 불쾌감 뿐만 아니라 소변중에 粟粒狀의 응고 물질이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수많은 주장들이 본 조문에 대하여 石淋의 증상을 설명한 것이라고 하였다.

淋病은 腎虛로 인하여 膀胱熱盛의 상황이 유발되고 그로 인하여 소변중의 모종의 성분이 熱의 薰灼을 받아 粟粒狀의 고체물질을 형성하여 뇨도를 막고 소변을 시원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熱鬱氣滯로 인하여 少腹弦急 및 痛引臍中의 증상까지도 초래한다. 이러한 종류의 石淋은 다른 淋證에 비하여 排尿痛이 매우 심하다.

【原文 9】

趺陽脈數, 胃中有熱, 卽消穀引食, 大便必堅, 小便卽數

## 【解釋】

趺陽脈이 數하면 胃中에 熱이 있는 것이므로 곧 음식물이 소화가 잘 되고 음식이 당기며 대변이 반드시 단단하고 소변은 頻數할 것이다.

『心典』에서는 “胃中에 열이 있으면, 消穀善飢하니 곧 후세에 消穀善飢한 것을 中消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胃熱이 있으면 진액이 마르기 때문에 大便이 단단해지고, 대변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액이 오직 前陰으로만 흘러들어가니 小便數이 된다. 이것 역시 前條의 消渴胃堅之證에 속하니 본 조문을 淋病의 아래에 둔 것은 착간이 아닌가 의심된다.”라고 하였다. 반면에 『淺注』에서는 “이것은 淋病이 胃熱下注에서 유래한 것으로 消渴과는 異流同源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증상으로 미루어 보건데 淋病 역시 陽明熱에 속한 實證의 병변이므로 陳念祖의 주장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 【原文 10】

淋家不可發汗，發汗則必便血

## 【解釋】

淋病 환자에게는 發汗療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만일 잘못하여 발한시키면 반드시 便血의 증상이 유발될 것이다.

본 조문은 『傷寒論』 太陽篇에 기재되어 있으며, 淋病의 治療禁忌에 해당된다. 淋病은 腎虛로 인한 膀胱有熱로 津液이 항상 부족한 병이다. 또한 膀胱畜熱로 인하여 항상 發熱증상이 나타난다. 病機로 살펴본다면 본 증상은 외감과 다르고, 치료면에서도 辛溫한 약물을 이용한 發汗療法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만일 하나라도 부주의하여 表證發熱로 誤認하여 陽藥을 잘못 투여하여 發汗시키면, 반드시 營分을 겁박하여 손상시키니 迫血妄行하게 되어 尿血의 變證이 발생하게 된다.

## 【原文 11】

小便不利者，有水氣<sup>①</sup>，其人苦渴，栝樓瞿麥丸主之。

## 【解釋】

체내에 水氣가 있어서 腹中冷하여 小便不利하면서 渴症으로 고통스러워 한다면 栝樓瞿麥丸으로 치료해야 한다.

栝樓瞿麥丸方

栝樓根二兩 茯苓薯蕷各三兩 附子一枚炮 瞿麥一兩

右五味，末之，煉蜜丸梧子大，飲服三丸，日三服，不知，增至七八丸，以小便利，腹中溫爲知。

張璐는 “이 처방은 栝樓根을 사용하여 生津하고 薯蕷를 사용하여 補肺하며 茯苓을 사용하여 울체된 肺氣를 소통시켜 氣를 下行시키며, 瞿麥으로 방광에 막힌 것을 소통시켜 줌으로서 下焦에 울결된 것을 풀어주고자 한 것이며, 또한 陽藥의 開通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附子를 조금 넣어 使藥으로 삼았는데, 반드시 水氣가 積滯되고 腹中이 冷한 사람에게만 쓸수 있다. 만일 水氣가 있더라도 腹中이 冷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용하려면 枳實五苓散을 이용한 처방이 효과적이니 계지로 附子를 대신해야 한다. 만일 積熱로 癰閉한 경우라면 마땅히 附子를 知柏으로 대신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본 조문은 下寒上燥에 속한 小便不利의 證治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본 조문의 주요 증상은 小便不利이며, 病機로는 腎陽不足으로 인한 것이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膀胱者，洲都之官，津液藏焉，氣化則能出”이라 하였으니, 腎陽이 부족하면 氣化작용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므로 小便不利하게 된다. 小便不利는 水停不行한 것으로 체내에 水氣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腎氣가 부족하게 되면, 蒸化津液할 수 없으므로 陰精이 상승할 수 없는 까닭에 上焦에는 오히려 燥熱이 발생하여 갈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본 조문은 下寒上燥의 증상에 관한 것으로 上焦의 燥證은 潤法이 아니면 제거되지 않으며, 下焦의 寒證은 溫法이 아니면 제거되지 않는다. 栝樓瞿麥丸을 이용한 처방은 化氣利水와 潤燥의 기능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方中에 사용된 栝樓와 薯蕷는 生津潤燥하고, 茯苓과 瞿麥은 化氣利水하며, 附子는 溫陽化氣하니 水氣를 제거하고 氣化작용이 회복되니 下寒上燥의 증상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증상을 살펴보면 본 조문과 관련된 증상 전체를 서술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下焦陽虛의 증상을 지칭하는 것이 없이 다만 처방의 뒷부분에 “以小便利, 腹中溫爲知”라는附注 만을 달아놓았다. 또한 “有水氣”라는 세글자로 미루어보건데 아마도 본 증에는 원래 腹中冷이나 혹은 腰以下에 浮腫 등의 증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衍義』에서는 小便不利는 水氣와 肺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고, 『淺注』에서는 “不在膀胱而在腎”이라고 하였다. 사실 水氣停留不化는 肺脾腎三臟과 모두 관련이 있다. 만일 폐가 병들어 通調水道 下輸膀胱할 수 없거나,脾가 병들어 胃를 위하여 津液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腎虛하여 化氣利水하지 못하는 것 모두가 水氣停留를 초래한다. 下焦의 氣化作用으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膀胱과 유관하지만 실제적으로 腎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腎과 膀胱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 【原文 12】

小便不利, 蒲灰散主之<sup>①</sup>, 滑石白魚散, 茯苓戎鹽湯并主之.

#### 【解釋】

小便不利와 浮腫이 함께 나타나며 小腹痛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蒲灰散을 사용해서 치료하며 滑石白魚散과 茯苓戎鹽湯을 사용한 치료도 고려할 만하다.

#### 蒲灰散方

蒲灰七分 滑石三分

右二味, 杵爲散, 飲服方寸匕, 日三服.

蒲灰와 滑石은 開鬱清熱하고 滲濕利尿하여 小便不利와 淋을 치료한다. 淋證은 배뇨시 소변통로가 아프며 어혈이 있는 것처럼 막혀있는데 蒲黃은 行血利尿하니 그 증상에 꼭 맞는 처방이다.

#### 滑石白魚散方

滑石二分 亂髮二分燒 白魚二分

右三味, 杵爲散, 飲服半錢匕, 日三服.

方中の 滑石은 清熱利尿하고 亂髮은 止血補血하고 白魚는 消痕行血하니 본방의 主治症은 앞의 처방과 달리 淋病을 주관하고 또한 小便不利를 주관

한다. 莫文泉은 “『本經』에는 衣魚가 小便不利를 주관한다고 하였는데 白魚라 하고 또는 一名 鰾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氣化하여 생긴 蟲으로 氣不化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膀胱은 州都之官으로써 津液을 저장하며 氣化하면 소변이 배출된다.”라고 했으니 이는 小便不出的 원인이 氣不化임을 밝힌 것이다. 『範汪方』에는 “小便不利를 치료할 때는 白魚(책에 있는 좀벌레)二七枚로 환을 만들어 한번에 먹는다.”라고 하였다.

#### 茯苓戎鹽湯方

茯苓半斤 白朮二兩 戎鹽彈丸大一枚

右三味, 先將茯苓, 白朮煎成, 人戎鹽再煎, 分溫三服.

『證類本草』의 「戎鹽」에는 “溺血을 주관한다.”라고 하였다. 莫文泉은 “『本經』에는 ‘戎鹽鹹寒’이라고 하였고, 『別錄』에는 ‘心腹溺血을 치료한다.’라고 하였고, 濕熱이 內結한 병증에 이 처방을 사용해서 치료하면 된다. 石淋膏淋과 같은 병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하였다.

본 조문은 세가지의 小便不利에 관한 처방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小便不利는 증상의 하나로써 수많은 질환에서 나타나며, 그 발생 원인 역시 매우 많다. 여기에서는 小便不利를 主症으로 하는 세가지의 처방이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약물의 조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蒲灰散은 蒲灰와 滑石 두가지 약물로 이루어져 있다. 蒲灰에 대하여 어떤 주가는 蒲席을 태운 것이라고 하고 어떤이는 蒲黃粉을 뜻한다고 하였다. 『本經』에 따르면 蒲黃은 心腹膀胱의 寒熱을 치료하여 利小便, 止血, 消瘀의 작용이 있다. 이것으로 볼때 蒲黃이 옳다. 『千金要方』에는 蒲黃과 滑石 두가지로 이루어진 처방으로 小便不利와 莖中急痛 및 小腹急痛을 치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도 蒲黃은 임상에서 사용할 때 生用하는 것과 炒用하는 것이 다른데, 『大明本草』에서는 “破血消腫者生用之, 補血止血者須炒用”이라고 되어 있고, 본 조문에서 滑石과 함께 사용된 점으로 볼때 마땅히 生用해야 한다. 그런데 왜 蒲灰라고 했

는지에 대하여 鄒潤安은 “蒲黃의 질감이 본래부터 재와 같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즉 태우지 않아도 재와 같은 질감을 갖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蒲黃은 涼血消瘀消腫하는 효능을 가지며, 滑石은 清熱利濕에 좋은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두가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化瘀利竅泄熱의 효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濕熱로 인한 小便不利, 尿道疼痛, 小腹急痛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혹은 小便不利에 身腫을 겸한 증상도 病機가 濕熱로 인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滑石白魚散은 蒲灰散에서 蒲黃 대신 亂髮을 사용하고 白魚를 더한 것이다. 白魚는 또한 依中白魚(좀벌레)를 뜻하는 것으로 『名醫別錄』에서는 ‘療淋墮胎’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亂髮에 대해서는 ‘主五淋, 大小便不通’의 효능이 있다고 하였다. 白魚는 消瘀行血의 효능이 있고, 亂髮은 止血消瘀의 효능이 있으니, 본 처방의 방증이 후세에서는 血淋이라 하였고 病情 역시 熱盛에 속하는 것이므로 小便不利 외에도 小腹脹滿 등의 증상에도 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茯苓戎鹽湯 중의 戎鹽은 곧 靑鹽으로 性味가 鹹寒하여 溺血과 吐血을 치료하며, 水臟을 돕고 益精氣한다. 茯苓과 白朮은 健脾利濕한다. 본 처방은 모두 益腎清熱, 健脾利濕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고로 본 처방의 方證이 中焦脾虛와 下焦濕熱이 비교적 심한 小便不利症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세 처방은 모두 小便不利를 主症을 삼고 있으며, 또한 모두 淋病과 溺血을 치료할 수 있으니, 세 처방과 관련된 病機의 대다수가 腎과 膀胱에 熱이 있는 까닭에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처방은 앞에서 언급한 括婁瞿麥丸이 下焦 陽虛를 주증으로 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처방의 主治症 역시 輕重과 虛實의 차이가 있으니, 蒲灰散은 利濕通溺에 효과적이이지만 消瘀止血의 효능면에서는 滑石白魚散보다 못하다. 茯苓戎鹽湯은 구성 약물이 모두 健脾의 효능이 있으니, 小便을 通하게 하면서 補하는 효능을 겸하고 있다.

#### 【原文 13】

渴欲飲水, 口乾舌燥者, 白虎加人參湯主之.

#### 【解釋】

口渴로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입이 마르고 혀가 마르는 증상에는 自虎加人參湯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본 조문은 熱盛으로 津液이 손상되어 발생한 消渴의 증치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입이 마르고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것은 물을 마셔도 곧 입과 혀가 다시 마르는데, 肺와 胃에 열이 盛하기 때문에 津液과 氣가 모두 손상된 증후이다. 대개 熱은 氣를 손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津液 역시 쉽게 손상시키며, 氣가 虛하면 津液을 化生시킬 수 없고, 津液이 없으면 위로 상승할 수 없으므로 口乾舌燥하고 갈증이 나는 것이다. 이것이 곧 上消의 기전이다. 白虎加人參湯은 清熱生津止渴하기 때문에 본 증에 적합하다. 또한 『傷寒論』 陽明病 222조와 동일하다. 때문에 어떤 주가들은 消渴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상 실재에서 白虎加人參湯은 肺胃熱盛으로 인한 消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 【原文 14】

脈浮發熱, 渴欲飲水, 小便不利者, 猪苓湯主之.

#### 【解釋】

脈浮發熱하고 口渴이 있어서 물을 마시고 싶어하고 小便不利한 경우에는 猪苓湯을 사용한다.

#### 猪苓湯方

猪苓去皮 茯苓 阿膠 滑石 澤瀉 各一兩

上五味, 以水四升, 先煮四味, 取二升, 去滓, 內膠烱消, 溫服七合, 日三服.

本 처방은 五苓散에서 白朮과 桂枝를 제거하고 滑石과 阿膠를 더하여 만든 것이다. 五苓散과 비교하면, 五苓散證은 脾胃의 燥化기능이 不足하고 吸收力이 미약한 陽虛에 속한다. 猪苓湯證은 熱이 肺陰을 소모시켜 發熱하고 구갈이 발생하여 清肅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小便失利가 생기는 것이니 陰虛에 속한다. 本方의 猪苓은 利尿하고 茯苓澤瀉는 行水化氣하며, 滑石은 清肺熱하

고, 阿膠는 滋腎陰하니 함께 사용하면 淸肺利尿, 滋陰潛陽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그 효능을 확대해보면 下焦陰虛生熱로 인하여 勞淋病이 발생한 것, 熱陷下焦하여 血淋病이 생긴 것등에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며, 효과도 傷寒陽明에서 언급한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본 조문은 熱傷陰分으로 인한 小便不利에 대한 증치에 대하여 논술하고 있다. 본 조문은 五苓散證 조문과 함께 小便不利, 渴欲飲水, 脈浮發熱의 증상을 치료하지만 病機는 다르다. 때문에 『金鑑』에서는 “同文義異”라고 하였다.

五苓散證은 병이 太陽에 있으며 膀胱의 氣가 不化하여 小便이 不利하게 되고, 水氣가 停滯되고 津液이 상승하지 못하여 口渴引飲하게 된 것이다. 豬苓湯證은 병이 陽明에 있고, 水와 熱이 맺혀서 水氣가 停滯되어 소변이 不利하게 되고 熱이 陰液을 손상시켜 口渴引飲하는 것이다. 치료방법에서 前者는 化氣利水를 주로 삼아 化氣하여 水氣를 行하게 하면 소변이 통하고 熱 역시 풀린다. 후자는 滋陰利水를 주로 삼아 陰液을 회복시킴으로써 口渴이 스스로 낮게하고 淸熱利水하여 발열이 제거되면 소변 역시 통하게 된다.

그러나 먼저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은 小便不利는 雜病에 속하는 증상이며, 五苓散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매우 많으므로 소변불리 증상이 모두 太陽病表證에서 유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膀胱氣化不行도 그 중 하나이다. 豬苓湯은 비록 小便不利를 치료한다고 하지만, 그것 역시 熱傷陰分의 淋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저령탕 역시 傷寒陽明病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 무릇 이것은 모두 異病同治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상활용에 있어서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III. 結 論

消渴小便不利淋病脈證并治篇은 消渴, 小便不利, 淋病에 대하여 주로 논술하고 있는데, 消渴, 小便不利, 淋病에 관한 내용을 병기와 처방에 대하여 분석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본 편에서 논술한 消渴은 내용상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열성 질환의 진행과정에 나타나는 口渴引飲의 증상이고, 하나는 雜病에 속한 消渴이라는 질환이다. 厥陰病消渴 및 五苓散證, 豬苓湯證, 蚊蛤散證, 白虎加人參湯證 등과 같은 것이 모두 前者에 속하며, “跖陽脈浮而數”의 조문 및 腎氣丸症은 後者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金匱』의 특징이 하나의 처방으로 많은 질환을 치료한다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病機와 證候가 서로 같다는 원칙하에서는 방제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白虎加人參湯의 겨우에는 전염병 중에서 熱盛을 인하여 傷津液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만, 또한 雜病에 속한 消渴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豬苓湯 역시 口渴小便不利에 사용하지만 그것 또한 熱甚傷陰의 淋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小便不利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五苓散證, 豬苓湯證과 栝藶瞿麥丸證이 있다. 五苓散은 化氣利水하고, 豬苓湯은 滋陰利水하니, 두 가지는 열성 질환의 진행과정 중에 發熱小便不利한 증을 주로 다룬다. 그러나 발열의 원인이 하나가 아니므로, 利水라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解熱의 방법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처방은 잡병에 속하는 병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상한의 전변규율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 栝藶瞿麥丸은 化氣利水하고 겸하여 潤燥하니 腎陽不足으로 인하여 下寒上燥한 경우에 적당하며, 腎氣丸의 變方에 속한다.

3. 蒲灰散, 滑石白魚散과 茯苓戎鹽湯 세가지 처방은 모두 小便不利를 치료하지만, 淋證 혹은 尿血등 氣血 두가지 모두가 병든 질환을 겸하여 치료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술한 諸方의 化氣利小便하는 것과는 다르다. 본 편에서는 淋病에 대한 논술이 매우 간결하므로 脫漏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 그러나 淋病의 치료는 小便不利의 치료와 함께 통용하여 치료할 수 있으므로, 비록 논술은 적으나 처방은 적지 않다.

### 參考文獻



1. 尤怡, 金匱要略心典, 華夏出版社,
2.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3.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人民衛生出版社,
4. 김정범, 金匱要略辨釋, 한의문화사, 2000.